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최 은 수*

◁ 목 차 ▷	
I. 서 론	IV. 통일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 과제
II. 남북한 학교 교육과정과 통일 교육 내용	V. 결 론
III.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I. 서 론

남북이 분단된 후 냉전체제속의 상이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우리 민족은 서로 반목하고 대립되는 분열 상황 속에서 반세기가 흘렀다. 그 동안 남한의 경우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유교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전통사상과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일종의 ‘제도화된 사고구조(institutionalized thought structure)’로 자리잡아 왔다.¹⁾

* 숭실대학교 인문대 교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최대의 염원은 ‘통일’이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현상은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대결상태 속에 있던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완화되었다. 현재 공식적인 남북간의 대화는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있으나 이제 남북은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간에 가로 놓여 있던 통일의 장애요인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단순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필코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진정한 남북통일은 정치체제와 지역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통일을 통해 형식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통일에 대비한 그들의 교육적 노력과 준비성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데올로기적 대립 개념에서 탈피하여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자각 의식을 갖게 하고 통일된 독일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된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이 오늘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따르게 될 갈등과 혼란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여 교육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

1) 최은수,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산학술논총」, 제5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6, pp. 94~95.

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 모두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제6차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급 단계의 학교교육에서 추구되고 강조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지침서에 담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해 지금까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던 남북한의 교육수행 체제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은 그 동안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는 이질성을 조장하는 교육에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데 실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체제에서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것은 학교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 내부의 화합과 동질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통일의식을 고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가올 통일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의 내용은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을 받아들일 심성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 우선 첫째로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지향적 성격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남북한 학교 교육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남한의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다. 둘째,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이미지 구상과 북한주민에 대한 심성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적 대안에 중점을 두고,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특히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문제, 청소년의 통일의식 문제,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세번째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통일사회에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았다.

II. 남북한 학교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북한체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관과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분단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여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 있는 민족 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기능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문화지체 현상을 최소화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참다운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통일교육은 비록 교과서 내용은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학교교실의 현장에서는 국가안보 교육, 국민정신 교육, 반공정신 교육, 승공 교육 등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세적 성격을 띤 안보 논리의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학교 통일교육은 명실공히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상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통일지향적 성격의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학교교육과정을 비교해 보고 학교교육 내용상의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한 학교 교육과정 비교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의무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초등교육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중등교육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6년(일부는 중학교 단계인 9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완전 무상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의무교육의 조직·집행과정을 직접 관장하여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북한 초등교육의 교육과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남북한 초등교육 교육과정 편제 비교

남 한			북 한		
교 과	총시수	%	교 과	총시수	%
국 어	850	21.0	국 어	1,068	30.9
산 수	612	15.1	수 학	982	28.4
자 연	510	12.6	자 연	148	4.2
체 육	406	10.0	체 육	456	13.1
음 악	272	6.7	음 악	304	8.7
미 술	272	6.7	도화 공작	304	8.7
도 덕	136	3.4	경애하는 수령 김	78	2.5
사 회	476	11.8	일성 원수님 어린		
실 과	136	3.4	시절		
특별 활동	238	5.9	친애하는 지도자	78	2.5
학교재량시간	136	3.4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공산주의도덕	152	4.3
	4,046	100.0		3,570	100.0

주 : 1) 남한의 편제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3~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북한의 편제는 1994년에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인민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함.

위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남북한 교과목 상의 차이를 보면 남한의 사회과가 북한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치사상교양을 대단히 높은 비중으로 강조하면서도 이와 같이 사회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는 사회과가 의도하는 목표, 즉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북한 사회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는 ‘공산주의 도덕’ 과목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교육이 재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에서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도덕 과목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산주의 도덕 교과는 김일성 부자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

다음의 <표 2>는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한의 큰 차이점은 개설 교과목의 차이이다. 북한은 총 24개 교과 중 김일성 부자 관련 과목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과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에서도 북한은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한 단계 높여서 각각 혁명 활동과 혁명 역사로 세분화하고 있어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는 몇 개 과목에서 남북한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한이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국어와 외국어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위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해 본 대로, 남북한의 학생들은 비정치적 및 비사상적 교과과정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나, 정치사상 교육의 측면에서는 매우 상이하고도 이질적인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을 상대로 두 사회 상호간의 이미

2)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 개발 연구」(서울교육대학교, 1995), p. 79.

〈표 2〉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비교

북한						북한		
중 학교			고등학교 인문·사회과정			교 과	총시수	%
교 과	총시수	%	교 과	총단위수	%			
도 덕	204	5.9	윤 리	6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150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역사	195	2.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 동지 혁명활동	112	1.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 동지 혁명역사	110	1.6
						현행 당 정책	102	1.5
국 어	476	13.7	국 어	28	14.0	국어문학	769	11.0
			국 사	6	3.0	역 사	280	4.2
사 회	374	10.8	사 회	22	11.0	지 리	344	5.1
수 학	408	11.8	수 학	18	9.0	수 학	1,283	19.0
과 학	406	11.7	과 학	18	9.0	물리, 화학, 생물	1,340	19.9
체 육	306	8.8	체 육	14	7.0	체 육	309	4.6
음 악	136-204	3.9-5.9	음 악	4	2.0	음 악	143	2.1
미 술	136-204	3.9-5.9	미 술	4	2.0	미 술	76	1.1
한 문	136	3.9	한 문	8	4.0	한 문	251	3.7
외국어	408	11.8	외국어	30	15.0	외국어	591	8.8
실업, 가	306	8.8	교 련	12	6.0	여학생실습(여)	210	3.1
정	136	3.9	실업, 가정	16	8.0	기계조작실습(남)	197	2.9
가 정	170	4.9	교양선택	2	1.0	실 습	220	3.3
기술산업	102-204	2.9-5.9	특별활동	12	6.0	제 도	60	0.9
자유선택	102-204	2.9-5.9						
(한문, 컴 퓨터, 기 타) 특별 활동								
	3,468	100.0		200	100.0		(여) 6,545 (남) 6,532	100.0

주 : 1) 중학교는 제6차 교육과정을, 고등학교는 제5차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함.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 단위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북한의 편제는 1986년에 공포한 편제임.

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가능성 보다는 한계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학교교육 내용상의 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북한이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표출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융합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³⁾

현재 통일교육은 주로 가치관, 태도 등의 정의적 특성에 강조점을 두고 도덕과와 윤리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국어과, 사회과에서는 통일관련 부분이 대단히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제6차 초·중·고교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지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내용 차원으로서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의 비교,’ ‘통일과정의 이해,’ ‘통일 상황 전망,’ ‘통일 사회에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성향의 차원에서 지식, 가치 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와 ‘통일의 의지,’ ‘통일 준비,’ ‘통일 이후 대비’와 같은 정의적 태도 및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실천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바른 생활, 도덕,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1994, pp. 164~187.

가.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초등학교의 도덕과 통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지를 다지게 한다. 3학년에서는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4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고,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5학년에서는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6학년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학년 1학기 바른 생활] 통일의 길 :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염원

[2학년 1학기 생활의 길잡이] 북한에 사는 친구들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 염원 갖기

[3학년 1학기 도덕] 한 겨레 한 나라 : 현충일; 우리 나라 땅;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4학년 1학기 도덕] 겨레의 소망 :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 알기와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의지 기르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글을 통해 조국의 미래상을 그려봄과 동시에 통일의지 기르기

[5학년 도덕] 평화통일을 위하여 :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 살펴보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의지 다지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과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사례 알아보기

[6학년 도덕]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 등산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길에 대해 알아보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알아보기; 통일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알아 보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2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현실 이해 및 남북한 비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족의 동질성 인식’은 2학년 1학기에서 다루고 있다.

나.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

중학교 1학년 도덕의 내용체계에서 국가·민족 생활 영역은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를, 2학년에서는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을, 3학년에서는 민족공동체의 변영, 통일 국가의 실현,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다룬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1 도덕] 나라의 중요성과 나라발전 - 통일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중 2 도덕] 민족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제시한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반드시 공존 공영해야 할 동포임에 틀림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중 3 도덕] 국제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이에 민족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통일 국가의 실현과 세계 속의 한국인 상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자

세를 살펴본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중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설득적인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윤리과목의 내용체계에서 통일과제 영역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을 다룬다.

[고등학교 윤리]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이 제시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 단절에서 비롯된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통일의 과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유와 배경, 통일의 당위성과 그 의미를 알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문제도 생각하도록 한다. 동시에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서부터 통일 장애요인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예상된 통일의 과정,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통일 과제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남북한 현실’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현 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상황 및 여건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남·북한 체제 비교나 분단의 현실 파악이 아니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현실의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어린이나 청소년, 주민들의 생활 등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상대방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통일의 준비라는 영역은 그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명료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이 요청된다. 셋째,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사회 통합 문제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원의 학습을 통해 기대되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III.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이란 정치제도나 경제체제와 같은 외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우리들이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통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여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동독 사람들은 스스로를 독일의 2류 시민으로 인식하고 서독 사람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간의 일체감을 갖는 일이 통일을 대비한 우선 과제라 여

겨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이 진정한 통일을 촉진시키는 일일 것이다.

오수성의 연구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주목되는 통일의 저해요인으로서 적색 콤플렉스(red complex)를 들고 있다.⁴⁾ 한국 전쟁의 전후 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했다. 우리 나라의 역대 통치자들은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상정하여 한국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진 남한 사람들에게 적색 콤플렉스를 조장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통합의 기제로 사용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양을 통해 좌절과 갈등의 돌파구를 찾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의 무의식에 적색 콤플렉스가 잠재되어 있어 사람들은 희생양에 대해 내적 적개심을 투사하여 정서적 균형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또는 반공교육을 받게 되면서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하여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었다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감당할 수 있는 심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서의 논의되어야 할 심리적 문제로서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청소년의 통일의식, 그리고 북한 사회·주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문제

남북이 분단된 후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을 같은 동족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멸공교육, 반공교육을 통해 적대시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교육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은 민족 분단의 실제

4) 오수성,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993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1993, pp. 81~90.

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극복의 길을 모색케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종속물로서 분단의 양편에서 이를 합리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서로를 부정하고 민족의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편이 되고 말았다.

공산주의를 무조건 미워하고 반대하도록 가르친 획일적인 반공교육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흑백론적 가치관’이 자라게 된 것이다. 한편 남북한은 그 동안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유의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사실 정보가 차단되었던 상태이므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남북간의 이질성은 각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교육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이질성이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의 길을 추구하려면 상호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넓혀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민족의 동질적인 요소를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촉매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기반인 동시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포착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⁵⁾

남북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찾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으로는 무엇보다도 민족동질성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은 이데올로기의 차이 이전에 하나의 민족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민족의 오랜 전통 속에서 민족 내부의 문화와 관습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생활 내에서도 생활방식, 교육 중시의 가치관, 가족주의의 생활 등의 동질성이 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와

5) 한만길,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산아카데미 제2회 통일 교육 세미나 자료, 1996, p. 29.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질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문화적 동질성이 파괴되어 버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언젠가 민족통합을 이루게 될 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와 같이 민족이 분단된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 이후에도 공동의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정기적인 보완작업을 펴는 등 ‘하나의 독일’임을 강조해 왔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을 뿐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동질성의 원천은 민족의 전통 문화와 현재의 생활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 동질성을 과거의 전통 문화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고유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민족 문화와 도덕 규범을 그래도 지속시켜 왔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그것들을 민족동질성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과거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의 문화가 아무리 이질화되었다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승된 민족 문화의 뿌리는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편, 민족의 동질성을 남북한의 현실 문화 속에서 찾으려는 연구도 있다. 윤덕희와 김규륜은 남북한 사회 문화 비교를 통해 남북간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⁶⁾ 언어의 동질성, 가족 문화의 동질성, 동질적인 유

6)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 구체화 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4.

교 문화, 민족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 및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 등은 민족적 동질성이 존재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성은 사회적 특성에서도 발견된다. 이온죽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강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질서를 지배하며, 강렬한 권력과 지위 지향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점으로 보아 한국 사회의 전통적 특성이 동일하게 남아 있다고 보았다.⁷⁾

결국 동질성은 남북한의 현재 생활 안에서 생활방식, 사고체계, 가치관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동질성 확보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교육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40년 이상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을 갖고 있던 이산 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는 그 이질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은 남북한을 횡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극히 타당한 말일 것이다.⁸⁾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통하여 민족적인 동질성이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이러한 방향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 남북간의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의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모든 교과에 걸쳐서 북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 통일교육에 반영시켜야 하며, 특별활동 등 학생들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 통일교육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1990 참조.

8) 박재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교육연구」, 12권 9호, 1992, pp. 25.

2. 청소년의 통일의식 문제

우리의 젊은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세대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6·25사변을 체험한 기성세대는 누구보다도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반면에, 6·25를 체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대북 경계심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으며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학생들의 북한관에 대해 조사 결과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북한 주민을 ‘동포’로 인식하나 중고교생들 중에는 많은 수가 동포로서보다는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에 실시된 여러 연구들¹⁰⁾의 결과에서는 우리 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문제점과 현실주의적인 의식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형성해 주는 우리 나라 통일교육의 현실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쳐진 채 다음과

9)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6 참조.

10)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92 연구보고서, 1992); 오기성,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북한」, 1995년 6월호, pp. 188~197 참조.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통일교육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¹¹⁾

첫째, 교육적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 관리 체제 등에 명확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상적이어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적절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만을 심어주어 반통일적인 신념을 형성하게끔 할 뿐이었다.

셋째, 우리의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객관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다운 민족 화합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하거나 통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하지 못하고 편협한 냉전논리만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넷째,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소신과 자질의 부족, 통일교육의 지원과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 담당교사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신 있는 명확한 가치 판단은 유보한 채,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방식과 절차,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균형감각과 통일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의 형성이나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형성에는 아직 미완성적이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통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영향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통일의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통일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통일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육적 과제로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전환을 위한 몇 가지 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11)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pp. 25~30.

12)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pp. 31~36.

첫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의 실시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족공동체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분단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대통합 운동’이라는 관점을 취한다면, 이제 새로운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상력, 탐구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수업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교수기법과 학습자료들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의 실시이다. 민족공동체는 한 민족이라는 자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규범체계가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이라 하겠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 의식 회복과 동시에 비인간화 상태에 있고, 또 소외된 북한 주민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구원의 의지를 형성함이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이다.

셋째, 통일국가에 대한 확신과 미래상을 심어주는 교육의 실시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냉전체제 하의 복고주의적인 통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에서 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의 실시이다. 평화란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사랑과 인도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 조화를 위한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은 적극적인 평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 정의와 세계애의 고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의 실시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반공교육이나 안보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북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하는 한편 동질성을 확

인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의 실시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통일과 관련된 단체들이 학교와 연계체제를 형성하여 통일교육의 지원과 관리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3. 북한 사회·주민에 대한 이미지 형성 제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 사회와 주민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차이는 세대에 따라 그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을 우리의 이웃과 동포로서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북한은 우리가 경계하고 대결해야 할 적과 같은 상대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은 시대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남 적대감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에 대한 불신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됨으로써 북한은 체제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북한 주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북한에서 경제난이 지속되고, 정권의 정당성이 실추되어 물리적 억압이 강화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의 탈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

한편, 탈냉전 시대라는 국제 사회의 대세 속에서 북한의 지도부도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다고 해도 남북간에 적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주민들간에 적대의식과 상호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을 달성하기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주민들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은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불신감을 없애고 통일에의 길을 순탄케 하려면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적 괴물’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혈연공동체이고, 같은 민족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확고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상이한 체제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왔지만 이 기간은 한 민족 5천년의 역사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남북간의 적대감과 이질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여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 남·북한의 전통 문화와 전통 의식에는 동질성이 보존되어 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명절의 예를 보면,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구정, 한식, 단오, 추석 등과 같은 전래의 음력 명절이 일부 농촌 지역에서 잔존해 왔다. 또한 북한은 설에는 옷놀이·연날리기·자치기, 단오와 추석에는 그네뛰기·널뛰기·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각각 새로운 운영방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¹³⁾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가치 체계와 의식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¹⁴⁾ 결과들로부터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에 의한 전체주의, 집단주의, 반이기주의, 반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북한 주민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북한 주민은 자기

13) 김기환, “북한의 명절,” 『통일한국』, 1995, pp. 46~48.

14)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 한국청소년연구원, 앞의 책 ; 오기성, 앞의 책 참조.

중심적이고 배타적이며 적대감이 강하고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다. 넷째,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다. 다섯째,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의식 성향 분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의식구조의 측면은 북한 사회에도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정보 통제가 어려워지고 서구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의식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들이 사회제도나 당에 대해 반항하거나 반체제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당정 간부들의 각종 부조리와 근무태만, 각종 경제 범죄, 청소년 비행, 노동 기피 현상, 서구 풍조 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로운 혁명 후기 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 ‘주체사상’에 입각한 집단주의적이고 순응적이며 폐쇄적인 의식구조가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조짐에 대한 분석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남북간에 이질성을 완화하고 동질성을 강화시켜 상호간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¹⁵⁾

결국, 민족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 동포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을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실 남북은 현실적으로 분단되어 서로 이념과 체제는 달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북은 서로 피가 섞인 형제가 있으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웃이 있다. 이것이 민족공동체의 원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어야 하며, 남북간의 적대감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족으로서의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민족적인 동질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제고 차원

15)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 사회 적응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RR 95-8, 1995), p. 38.

의 민족공동체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IV. 통일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 과제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으며 북한을 우호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세대도 있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통일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각을 달리하는 세대와 집단, 계층이 서로의 통일관을 이해하면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해와 조화를 통해 건전하게 형성된 국민의 통일관을 기초로 할 때 학생들의 통일관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라는 통일관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통적인 윤리의식의 측면, 민족주의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 교육의 측면 등으로 설정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부터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관련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이를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특별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 및 통일 문제를 각 교과와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모든 교과에서 통일에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어과는 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동질성, 그리고 북한의 전래동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회과에서는 북한의 주민 생활, 자연 지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체능 교과에서도 북한의 예술, 체육, 민속 경기, 오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¹⁶⁾.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전통, 관습, 언어, 민족정신 등에서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를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학교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문화 전통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언론 매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북한에 대하여 이질정보다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술되고 수업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언론 매체가 정략적으로 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된다면 이는 학교교육의 효과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일교육은 교과서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교 행사, 단체 활동, 사회 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 후 북한의 주민을 맞아들일 심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이 분단된 후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상이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지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는

16) 한만길,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산아카데미 제2회 통일교육 세미나 자료, 1996.

냉전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정한 남북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학교교육 역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의 측면에서 통일교육 문제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남북한 분단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 있는 민주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가올 통일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한의 학교교육제도와 통일교육의 현황을 알아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으로 더 긴데, 이는 사상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조기 실현 방침이 의무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제6차 초·중·고교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지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내용 차원으로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의 비교’, ‘통일과정의 이해’, ‘통일 상황 전망’, ‘통일 사회에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성향의 차원에서 지식, 가치 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와 ‘통일의 의지’, ‘통일 준비’, ‘통일 이후 대비’와 같은 정의적 태도 및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실천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선회가 필요하다.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 남북간의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의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내포되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라는 통일관을 갖고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학교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